

매화시제(梅花詩題)를 통해 본 매화 완상(玩賞)의 대상과 경관 특성*

소현수* · 임의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Objects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Apricot(*Prunus mume*) Appreciation through the Poem Titles

So, Hyun-Su* · Lim, Eui-J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This study scrutinizes the titles of serial poems on Japanese Apricot, which have lucid characters on season and time changes, having been appreciated and recited by the scholars in the Choseon Dynasty era and analyses the records of Zhang zi(張磁, 1153~1235), a writer in Song(宋) Dynasty in China, having presented the objects harmonizing perfectly with Japanese Aprico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tegorizes the objects of Japanese Apricot appreciation and establishes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n Japanese Apricot appreciation affiliated with as follows.

First, the objects of Japanese Apricot appreciation are categorized into ‘form of blossoms’, ‘natural feature(景物)’, ‘place of tree planting’, ‘the picturesque scene(景色)’ and ‘behavior’. Second, the scholars regarded the single trees whose branches are grotesque as the objects of appreciation and enjoyed them. They preferred white and single petal Japanese Apricot and admired red Japanese Apricot which has Taoism images. Third, they admired pines and camellias which represent fidelity and strength and valued Japanese Apricot with cranes which remind themselves of solitary scholars. Fourth, they appreciated the images of Japanese Apricot reflected on the water, and the poetically inspiring atmosphere where the trees are planted by the window. Fifth, the moon and snow were crucial weather conditions for appreciating. cold weather and time from night to dawn were ideally suited for enjoying. Sixth, they enjoyed blossoms in various fashions like bottling(瓶梅), potting(盆梅), green-housing(龕梅), searching(龕梅) and black-and-white painting(墨梅) with a view to seeing blossoms earlier than the usual flowering time. Moreover, they used paper drapes, bead curtains, mirrors and ice lamps for active appreciation. They also listened to the sound of Piri(wind) and Geomungo(string), played go and drew tea with noble and elegant beauties when they enjoyed Japanese Apricot. The scholars influenced by the neo-Confucianism, which contemplates the objects, attached the specific sentiments like memories, grieves, dreams and farewells to Japanese Apricot and appreciated them. As stated above the scholars enjoyed the landscape including the picturesque scene like climate-weather, time-season and human behaviors not to mention the physical beauty of Japanese Apricot themselves and objects in company with Japanese Apricot including animals and plants.

Key Words: Serial Poems, The Natural Features(景物), The Picturesque Scene(景色), Seasonality, Timeliness

* 이 논문은 2012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Lim, Eui-J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Jinju 660-758, Korea. Phone : +82-10-9830-1213, E-mail : sonagi@gnitech.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신위(申緯), 정학연(丁學淵)이 명료한 계절성과 시간성을 지닌 매화를 완상하며 읊은 연작시(連作詩) 두 편의 시제(詩題)와 매화와 잘 어울리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국 송대(宋代) 문인 장자(張鑑)의 기록물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매화 완상의 대상을 유형화하고 매화 완상에 관련된 경관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첫째, 매화 완상의 대상은 ‘매화의 형태’, ‘경물(景物)’, ‘식재 장소’, ‘경색(景色)’, ‘행태’로 구분되었다. 둘째, 선비들은 매화의 형태에 있어서 매화 가지의 기괴한 형상이 돋보이는 독립수를 즐겼다. 또한 고고하고 맑은 정서를 제공하는 백색 홀꽃을 가진 매화를 선호하였으며, 도교적 이미지를 가진 홍매를 즐기기도 하였다. 셋째, 선비들은 매화와 어울리는 경물인 절개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동백나무, 외로운 선비를 연상시키는 학과 함께 매화를 완상하였다. 넷째, 선비들이 물에 반영된 매화의 모습과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창문 앞에 식재된 매화의 정취를 즐겼던 사실에서 선호했던 매화의 식재 장소를 알 수 있다. 다섯째, 담담한 정신의 경지에 조응하는 달과 눈이 매화 완상에서 중요한 기상 현상이었으며, 새벽과 저녁 등 추운 날씨가 매화 완상에 어울리는 경색 조건이었다. 여섯째, 선비들은 매화꽃을 일찍 보기 위해서 병매(瓶梅), 분매(盆梅), 감매(龕梅), 심매(尋梅), 목매(墨梅)라는 방식으로 매화를 완상하였다. 또한 선비들은 적극적으로 매화를 즐기기 위해서 종이 휘장, 주렴, 거울, 얼음등[冰燈]을 이용하였으며, 피리나 거문고 소리를 즐기고, 바둑을 두고, 차를 끓이고, 절개 있는 우아한 미인과 함께 하는 등 매화 완상에서 다양한 행태가 이루어졌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비들은 매화 자체의 형태미, 식재 장소와 매화와 짹이 되는 동물, 식물을 포함하는 경물은 물론이고, 기상·기후, 시간·계절과 같은 경색, 그리고 인간의 행태 등 변화하는 요소를 매화 완상의 대상에 포함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즐겼다.

주제어: 연작시, 경물, 경색, 계절성, 시간성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조경에서 이루어지는 식재 설계는 보편적으로 개별 수목의 심미적 가치, 기능적 가치, 생태적 가치 등을 따져 부지 조건에 적절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간과되기 쉬운 수목이 지난 상징성은 전통 조경 문화에서 중요시되었다. 수목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매(梅) · 란(蘭) · 국(菊) · 죽(竹)으로 구성된 사군자(四君子) 중에서 ‘매실나무(*Prunus mume*)’로 표기하는 매화는 이른 봄을 알리는 꽃과 열매를 가진 유실수로서 현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생태적 특질에서 비롯된 다양한 전통적 상징성을 가진다. 즉, 겨울을 이겨내어 꽃을 피우는 매화의 시련 극복, 기개, 절조 등 도덕적 관념으로 형성된 윤리적 덕성을 토대로 하여 매화는 초월이나 선경(仙境)을 상징하였다. 또한 여인의 순결과 기품을 상징하여 ‘아치고절(雅致高節)’이라고 묘사되면서 부녀자의 신병용품에 매화 장식이 도입되고, 기녀(妓女)의 이름에도 매화가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매죽헌(梅竹軒)’, ‘매곡(梅谷)’, ‘매산(梅山)’, ‘매옹(梅翁)’, ‘매월당(梅月堂)’ 등 선비의 아호(雅號)에도 매화가 사용되었다.

매화는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풍치와 뛰어난 운치를 가진 수목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선비 문화를 양산하였다¹⁾. 매화를 즐기던 행사로 이른 봄에

행해졌던 탐매(探梅) · 심매(尋梅)로부터 매사(梅社), 상매회(賞梅會), 분매(盆梅) 품평회가 있었다. 또한 통정(通亭) 강희백(姜淮伯, 1357~1402)의 ‘정당매(政堂梅)’,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도산매(陶山梅)’,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이 기거했던 산천재에 식재된 ‘남명매(南冥梅)’, 오죽헌의 ‘율곡매(栗谷梅)’처럼 많은 선비들이 원림에 매화를 심고 기르며 즐겼다. 특히 매화를 사랑했던 퇴계는 도자기로 만든 매화등(梅花凳: 매화 결상)에 매화와 당초무늬를 새기고, 그 밑에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고안하여 날이 추우면 그 위에 앉아서 매화를 완상하였다. 많은 매화도(梅花圖)를 남긴 우봉(又峰)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의 ‘매화시경연(梅花詩鏡硯: 벼루)’, ‘매화서옥장연(梅花書屋藏硯: 벼루)’을 비롯해 연적(硯滴), 필세(筆洗) 등 사대부 문인의 필수품이자 애장품인 문방제구 장식에서도 매화 문양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선비들이 매화를 애호하였던 전통은 그들이 매화를 읊고 묘사한 많은 시와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창(梅窓) 조지운(趙之耘, 1637~?)의 「매화도팔폭(梅花圖八幅)」에는 달과 어울려 있는 월매(月梅), 눈 내린 풍경의 설매(雪梅), 부러진 가지가 곡선을 그리며 아래로 향해 있는 절매(折梅)²⁾, 안개 속에 피어 있는 연매(烟梅) 등 매화의 다양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강현(1975)은 매화시를 고찰한 후, 선비들이 매화에 곁들여 달, 눈, 숲 따위의 다른 사물을 아울러 노래한 것을 ‘매화의 좌우물성(左右物性)’이라고 칭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상 현상이나 선호하던 매화의 형태 등 선비들이 매화를

완상할 때 특정한 경관이 요구되었음에 착안하여 이루어졌다. 전통 경관의 구조와 관련하여 최종현(2000)은 승경(勝景)을 '경물(景物)'과 '경색(景色)'이라는 의미론적 이원론으로 설명하였다. 경물은 바위, 물, 모래, 나무 등 자연물을 총칭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시(城市), 취락, 사(寺), 정자, 루(樓) 등을 포함한다. 경색은 경물이 변하는 천 가지, 만 가지 형상인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을 뜻하며,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 의미가 깊고, 짙게 표현되기도 한다(최종현, 2000: 52). 이유직과 조정송(1996)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경관[實景]뿐만 아니라 소리, 빛, 향기 등과 같은 허경(虛景)을 중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소현수(2011)는 시각적 차경 외에 공감각적 차경, 일시적 차경, 관념적 차경이라는 방법으로 비가시적 경관 요소를 설명하였으며, 고정되지 않은 경관과 관련하여 중국 명시대에 간행된 『원야(園冶)』에는 「응시이차(應時而借)」라고 정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통 경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경물을 감상하는 시간과 계절 등 시간적 질서가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문학 · 국문학 · 미술사학 분야에서 매화시(이정은, 1996; 박혜숙, 2000; 이택동, 2004; 신익철, 2002 · 2004; 김지영, 2011)와 매화도(이선옥, 2006 · 2010; 김지선, 2007; 장남원, 2007; 홍현미, 2009)를 통해서 매화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규명한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다. 조경 분야에서 전통원림에 도입된 매화를 연구한 임의제와 소현수(2012)는 현대적 이용 방식과 달리 풍성한 원림 문화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료한 계절성과 시간성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원림 문화를 형성한 매화에 한정하여 전통 경관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최강현(1975) 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매화시에 묘사된 완상의 대상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나, 이를 포괄하여 유형화하거나 경관이라는 입체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본 연구는 매화가 지닌 정취와 감상 방식, 주변 경관과의 관계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원림 문화에서 차지하는 매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의의를 둔다. 또한 매화를 통해서 '경물'과 '경색'이라는 전통 경관의 이원 구조를 파악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조경의 인식을 확장하고, 비가시적 경관 요소를 포함하는 전통 재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퇴계 이황의 『매화시첩(梅花時帖)』³⁾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이 읊은 매화시는 수없이 많지만, 본 연구는 한 사람이 매화라는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경관을 묘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매화 연작시(連作詩)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8~19세기

에 만들어진 매화 연작시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 선비들이 매화를 완상하며 읊었던 매화시의 장르이다. 이전에는 매화에 대해서 5수 이상의 연작시로 지은 경우가 드물다(김지영, 2011: 141). 18세기 중반 서울에서 활동한 매사 동인 집단이 읊은 시도 1738년 20수, 1754년 40수 정도이다(신익철, 2002: 32). 선비들이 지은 단편의 매화시에 시제(詩題)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30수 이상의 거편(巨篇)이며 한 인물이 일관된 맥락으로 제목을 붙인 다수의 매화시는 신위(申緯, 1769~1845)⁴⁾와 정학연(丁學淵, 1783~1859)⁵⁾의 연작시 외에 찾기 어렵다. 따라서 매화 연작시를 대표하고 매화를 함축적으로 묘사한 시제를 가진 신위의 「매화삼십육영(梅花三十六詠)」과 정학연의 「매화삼십수(梅花三十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매화의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고 읊었으며, 매화와 함께 어우러진 주변 환경과 공간 상황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매 시마다 압축된 한 단어로 시제를 표현하였다. 『매화시첩』에 포함된 개별 매화시에 붙은 제목은 '옥당의 매화를 추억하다(玉堂情梅)', '망호당에서 매화를 찾다(望湖堂尋梅)', '서호에서 학을 벗하다(西湖伴鶴)', '도산의 달밤에 매화를 읊다(陶山月夜, 詠梅)', '매화(梅花)', '절우사(節友社)', '고산 매화에 숨은 은자(孤山梅隱)' 등과 같이 다분히 서술적이며 매화를 함축적으로 직접 묘사한 시제는 거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매화 완상 방식을 묘사한 중국 송대 성기(成紀) 사람인 장자(張鐵, 1153~?)⁶⁾의 문집 『남호집(南湖集)』에 「옥조당매품(玉照堂梅品)」이 있다. 장자는 별서인 옥조당을 짓고 매화를 삼백여 그루 심고 가꾸었으며, 매화의 성질과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하나의 지침을 만들었다. 곧 꽃(매화)과 잘 어울리는 것[花宜稱] 26조(條), 꽃이 미워하는 것[花憎嫉] 14조, 꽃이 영광되게 총애 받는 것[花榮寵] 6조, 꽃이 굴욕 받는 것[花屈辱] 12조를 기술한 것이다⁷⁾.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정학연의 「매화삼십수」, 신위의 「매화삼십육영」의 시제에서 제시된 매화 완상의 대상과 방식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진행하는데 먼저 한자로 이루어진 매화 연작시 두 개의 시제를 해제한 후⁸⁾, 세 가지 연구 대상 기록물별로 매화 완상의 대상을 정리한다. 다음 과정으로 세 가지 기록물에서 중복되는 완상 대상들을 추출하고, 공통 항목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당시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던 매화 완상의 대상을 파악한다. 이것은 연구의 목적인 경물과 경색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경관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이후 학제간 연구 방식을 취하여 매화와 관련된 문화적 특성을 규명한 기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앞서 유형화한 매화 완상의 대상들이 각각 어떠한 배경과 의미로 선비들에게 완상되었던 것인지 정리한다. 이는 시인의 사적 감정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보편화된 문화였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선비들이 매화와 함께 완상했던 대상들을 원림 구성을 요소로 이해하고 가상의 원림을 설정함으로써 매화가 식재된 원림이 경관적으로 어떤 구조와 특성을 지녔는지 정리한다.

II. 본론

1. 매화시와 매화 연작시의 연원(淵源)

성리학적 소양을 갖추었던 조선시대 선비는 자연을 심신수양의 근원적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산수자연을 탐방하거나 축소된 자연으로 이해하였던 꽃과 나무를 기르고 감상하는 행위는 선비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조선의 대표적 원에서 인 『양화소록(養花小錄)』과 『화암수록(花菴隨錄)』에서 일등급에 매(梅), 국(菊), 연(蓮), 죽(竹) 등을 귀속시킨 것도 이러한 선비의 미의식과 관련된다. 이중에서도 매화는 동아시아의 문학과 예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으로서 동양적 정신을 표상하는 하나의 뚜렷한 상징이 되었다. 따라서 매화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한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꽃이었다(이상희, 1998: 97). 다른 꽃보다 이른 매화의 개화 시기, 담담한 꽃 색깔, 깊고 맑은 향기 등 매화의 생태적 속성에서 비롯된 지조, 절개, 초연, 은밀, 굳세고도 아름다운 정신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매화가 선비의 정신문화 속에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은 매화를 감상하는 방식이 계층에 따라 다양함을 말하면서 그것이 드러내는 천리를 즐기는 현사(賢士), 고절한 풍모와 운치를 즐기는 임포(林逋)와 같은 부류의 처사(處士), 빛깔과 향기가 시흥을 돋는 것을 즐기는 사인묵객(詞人墨客), 뛰어난 아름다움에 못 이겨 술을 즐기는 공자왕손(公子王孫), 그리고 봄을 알리며 잎이 없는 데도 꽃이 피어남을 기이하게 여기는 범부(凡夫) 등을 제시한 바 있다⁹⁾. 수많은 사람들이 매화를 애호하였지만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등급에 따른 안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다음 일화를 통해서 당시 매화 완상의 풍조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알 수 있다.

“집이 가난하여 간혹 끼니를 잊지 못하였다. 어느 날 특이한 매화 한 그루를 사고 싶었으나 돈이 없던 차에 그림 값으로 삼천전(三千錢)을 받는 호재가 생기자 이천전(二千錢)을 들여 매화를 사고, 팔백전(八百錢)으로는 술 몇 되를 사서 동인(同人)들을 모아 매화음(梅花飲)을 마련하였으며, 단지 이백전(二百錢)으로 쌀과 땅나무를 사니 하루의 계책도 못되었다(조희룡 저, 한영규 역, 2003: 170).”

중국의 경우, 『시경』의 「표유매(標有梅)」를 시작으로 한 매화시의 역사는 2500년에 이르며, 한국의 매화시는 신라말 최광

유(崔匡裕)에서부터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를 거쳐 고려 말 사대부 계급 인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창작되었다(박혜숙, 2000: 420). 조선 전기에 사대부 문화가 정착되면서 매화 그림이나 매화시가 성행하였으며, 이후 사립파 인물들도 매화시를 창작하고 있어서 매화에 대한 관심은 이 시기 사대부 문인 공동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박혜숙, 2000: 421). 특히 18세기에 매화가 심미적 완상물로 애호되면서 집단적 매화시 창작이 성행하였다. 매사는 18세기 중반 경 서울에서 활동한 경화거족(京華巨族)과 서얼 문사들의 긴밀한 문학적 유대를 보여주는 시사(詩社)이다(신익철, 2002: 46). 매사 동인들이 7차에 걸쳐 매회(梅會)를 갖고 「매사오영(梅社五詠)」¹⁰⁾을 통해서 200수에 이르는 매화시를 창작한 데에는 이러한 시대적 풍조가 깔려 있었다(신익철, 2002: 35). 하나의 동인 집단에 의해 200수에 이르는 매화시가 일시에 창작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보인다(신익철, 2002: 47).

한편, 중국 당대(唐代) 후기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과거(科舉)에서 시부(詩賦) 100편을 짓게 하여 인재를 가려 뽑는 백편과(百篇科)가 있었는데, 당시 매화를 제재로 삼아 시를 짓는 일이 성행했던 것과 맞물려 매화시 100편을 연작시로 짓는 경향이 생겨났다. 특히 중국의 축윤명(祝允明, 1460~1526)이 지은 「매화백영(梅花百詠)」은 조선 후기 시사 동인들이 ‘매화 연작시’라는 형식으로 꽃이 편 시기나 장소에 따라 다른 매화의 특징적 모습을 묘사하게 하였다(김지영, 2011: 137). 신위는 자신의 매화 연작시가 「매화백영」을 화운한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매화를 소재로 한 거편의 연작시가 이전 시기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우매(雨梅)’, ‘야매(野梅)’ 등의 시제를 달아 여러 모습의 매화를 노래한 연작시는 형식상 새로운 작품이며, 매화시 창작의 사적(史的) 흐름에 있어서 특수성을 갖는다(김지영, 2011: 139).

18~19세기 특유의 매화 완상 풍조가 바탕이 되었던 결과로 매화 연작시와 관련하여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龍, 1762~1836)의 장자 유산(酉山) 정학연이 편찬한 『선음(鮮音)』¹¹⁾에 실린 시들이 주목된다(신익철, 2002: 47). 『선음』은 19세기 조선 시단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옹(泊翁) 이명오(李明五, ?~1836),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신위, 정학연 네 사람의 시 총 281수를 수록한 시선집인데, 여기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정학연의 칠언율시(七言律詩) 「매화삼십수」가 수록되어 있고 같은 형식의 매화 연작시로 1831년에 신위가 지은 「매화삼십육영」이 실려 있다.

2. 매화 완상의 대상

조선 초기의 문인 탁영(濯纓) 김일손(金鼎孫, 1464~1468)은 용재(慵齋) 이종준(李宗準, 1458~1499)이 그린 「매죽도팔폭

(梅竹圖八幅)을 보고 쓴 글에서 “눈[雪]에 덮여 휘늘어진 가지, 달[月]이 전하는 향기와 그림자, 바람[風]에 날리는 꽃술과 꽃잎, 안개[煙]에 감추어진 꽃 색의 농염한 모습, 고요하고 쇄락하며, 앞이 탁 트여 밝은 땅과 맑고 담담함이 있으니, 봇 하나의

조화로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정묘하게 나타내었다”고 하였다¹²⁾. 매화 완상은 단순한 꽃 하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꽃과 어우러진 다양한 경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자의 「옥조당매품」에는 ‘꽃과 잘 어울리는 것’ 26가

표 1. 연구 대상 기록물에 표현된 매화

구분	장자, 「玉照堂梅品」	신위, 「梅花三十六詠」	정학연, 「梅花三十數」
1	담음(澹陰) 열은(맑은) 그늘	강매(江梅) 강가의 매화	설매(雪梅) 눈 속의 매화
2	효일(曉日) 새벽(에 떠오르는) 해	계매(溪梅) 개울가의 매화	월매(月梅) 달빛 아래 매화
3	박한(薄寒) 약간 추운 날씨	영매(嶺梅) 산마루의 매화	연매(煙梅) 안개 속의 매화
4	세우(細雨) 보슬비	야매(野梅) 들판의 매화	우매(雨梅) 비 맞은 매화
5	경연(輕烟) 열은 안개	관매(官梅) 관아의 매화	효매(曉梅) 새벽 매화
6	가월(佳月) 아름다운 달	서창매(書窓梅) 글방 창밖의 매화	풍매(風梅) 바람속의 매화
7	석양(夕陽) 석양	금옥매(琴屋梅) 거문고 타는 집의 매화	야교매(野橋梅) 들판 다리 옆 매화
8	미설(微雪) 열은 눈발(싸락눈)	초경매(樵徑梅) 나무하는 길의 매화	강촌매(江村梅) 강 마을의 매화
9	만하(晚霞) 저녁 놀	승사매(僧舍梅) 절집의 매화	모옥매(茅屋梅) 초가집에 편 매화
10	진금(珍禽) 진기한 새	도원매(道院梅) 도원의 매화	주문매(朱門梅) 저택에 편 매화
11	고학(孤鶴) 외로운 학	전촌매(前村梅) 마을 어귀의 매화	역루매(驛樓梅) 역루의 매화
12	청계(淸溪) 맑은 개울	역점매(驛店梅) 역점의 매화	관각매(官閣梅) 관청 누각의 매화
13	소교(小橋) 작은 다리	소교매(小橋梅) 작은 다리 옆 매화	승사매(僧舍梅) 절집의 매화
14	죽변(竹邊) 대나무(밭) 옆	격령매(隔簾梅) 주렴 밖의 매화	기가매(妓家梅) 기방의 매화
15	송하(松下) 소나무 아래	방계매(傍階梅) 섬돌 옆의 매화	등전매(燈前梅) 등불 앞의 매화
16	명창(明窓) 밝은 창문	조수매(照水梅) 물에 비친 매화	경중매(鏡中梅) 거울에 비친 매화
17	소리(疎籬) 성긴 울타리	분경매(盆景梅) 화분의 매화	병매(瓶梅) 꽃병 속의 매화
18	창애(蒼厓) 푸른 언덕	옥적매(玉笛梅) 옥피리 소리와 매화	감매(龜梅) 온실 속의 매화
19	녹태(綠苔) 초록 이끼	지장매(紙帳梅) 종이 휘장과 매화	죽간매(竹間梅) 대나무 사이의 매화
20	동병(銅瓶) 구리로 만든 꽃병	억매(憶梅) 추억과 매화	송하매(松下梅) 소나무 아래 매화
21	지장(紙帳) 종이 휘장(가리개)	몽매(夢梅) 꿈속의 매화	홍매(紅梅) 붉은색의 매화
22	임간취적(林間吹笛) 숲속에서 피리 불기	심매(尋梅) 찾아가는 매화	묵매(墨梅) 먹으로 그린 매화
23	슬상횡금(膝上橫琴) 무릎 위에 가로놓인 거문고	별매(別梅) 이별과 매화	반탄매(半綻梅) 반쯤 피어난 매화
24	석평하기(石枰下棋) 바위 바둑판에서 바둑 두기	석매(惜梅) 아끼는 매화	미개매(未開梅) 피지 않은 매화
25	소설전차(掃雪煎茶) 눈을 쓸어 모아 차 끓이기	태매(苔梅) 이끼와 매화	도지매(倒地梅) 가지가 거꾸로 드리운 매화
26	미인담장잠대(美人澹粧簪戴) 열은 화장에 비녀 지른 미인	죽매(竹梅) 대나무와 매화	첩지매(疊枝梅) 가지가 겹친(얽힌) 매화
27	-	산다매(山茶梅) 동백나무와 매화	별매(別梅) 이별과 매화
28	-	설매(雪梅) 눈 속의 매화	몽매(夢梅) 꿈속의 매화
29	-	월매(月梅) 달빛 아래 매화	잠매(簪梅) 비녀와 매화
30	-	풍매(風梅) 바람속의 매화	화매(畫梅) 그림속의 매화
31	-	연매(煙梅) 안개속의 매화	-
32	-	미개매(未開梅) 피지 않은 매화	-
33	-	반개매(半開梅) 반쯤 피어난 매화	-
34	-	고생매(孤生梅) 홀로 자란 매화	-
35	-	녹악매(綠萼梅) 녹색 꽃받침을 가진 매화	-
36	-	연지매(蠟脂梅) 연지색의 매화	-

표 2. 연구 대상 기록물을 통해 본 매화 완상의 대상

대항목	소항목	「玉照堂梅品」	「梅花三十六詠」	「梅花三十數」
매화의 형태	꽃	-	고생매(孤生梅)	첩지매(疊枝梅), 도지매(倒地梅)
		-	미개매(未開梅), 반개매(半開梅)	미개매(未開梅), 반란매(半綻梅)
		-	녹악매(綠萼梅)	-
		-	연지매(臘脂梅)	홍매(紅梅)
경물	식물	죽변(竹邊)	죽매(竹梅)	죽간매(竹間梅)
		송하(松下)	-	송하매(松下梅)
		-	산다매(山茶梅)	-
		녹태(綠苔)	태매(苔梅)	-
	동물	진금(珍禽), 고학(孤鶴)	-	-
식재 장소	물	청계(淸溪)	계매(溪梅), 조수매(照水梅)	-
		-	강매(江梅)	강촌매(江村梅)
	지형	창애(蒼厓)	영매(嶺梅)	-
		-	야매(野梅)	-
		-	초경매(樵徑梅)	-
	마을	-	전촌매(前村梅)	강촌매(江村梅)
	공공 공간	-	관매(官梅), 역점매(驛店梅), 승사매(僧舍梅), 도원매(道院梅)	관각매(官閣梅), 역루매(驛樓梅), 승사매(僧舍梅)
	주택	-	금옥매(琴屋梅)	모옥매(茅屋梅), 주문매(朱門梅), 기가매(妓家梅)
	구조물	소교(小橋)	소교매(小橋梅)	야교매(野橋梅)
		명창(明窓)	서창매(書窓梅)	-
		소리(疎籬)	-	-
		-	방계매(傍階梅)	-
경색	기상 · 기후	가월(佳月)	월매(月梅)	월매(月梅)
		미설(微雪)	설매(雪梅)	설매(雪梅)
		효일(曉日), 석양(夕陽)	-	-
		경연(輕煙)	연매(烟梅)	연매(烟梅)
		세우(細雨)	-	우매(雨梅)
		담음(潛陰)	-	-
		만하(晚霞)	-	-
	시간 · 계절	-	풍매(風梅)	풍매(風梅)
		효일(曉日)	-	효매(曉梅)
		석양(夕陽)	-	-
		만하(晚霞)	-	-
		박한(薄寒)	-	-
		-	-	-
		-	-	-
행태	이용 방식	동병(銅瓶)	-	병매(瓶梅)
		-	분경매(盆景梅)	-
		-	-	감매(龕梅)
		-	-	묵매(墨梅), 화매(畫梅)
		-	심매(尋梅)	-
	부가 요소	지장(紙帳)	지장매(紙帳梅), 격렴매(隔簾梅)	-
		임간취적(林間吹笛)	우적매(玉笛梅)	-
		슬상횡금(膝上橫琴)	금옥매(琴屋梅)	-
		석평하기(石枰下棋)	-	-
		소설전차(掃雪煎茶)	-	-
		미인담장잠대(美人澹粧簪戴)	-	잠매(簪梅)
		-	-	등전매(燈前梅)
		-	-	경중매(鏡中梅)
	정서	-	억매(憶梅), 석매(惜梅)	-
		-	몽매(夢梅)	몽매(夢梅)
		-	별매(別梅)	별매(別梅)

지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해, 비, 안개, 달 등의 다양한 기상 현상과 새, 학, 대나무, 소나무, 다리, 울타리, 창문, 언덕, 개울 등 주변 사물과 경관 요소는 물론 피리 불기, 거문고 타기, 바둑 두기, 차 끓이기와 같은 인간 행태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선비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갖추어진 이상적 분위기에서 매화를 완상하였음을 방증한다.

한편, 매화 연작시를 대표하는 신위의 「매화삼십육영」 시제 36개와 정학연의 「매화삼십수」 시제 30개에서도 매화와 함께 즐긴 완상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두 연작시의 시제는 「매(梅)」 앞에 매화와 관련된 다양한 대상을 설명하는 한자어가 결합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강가, 개울가, 산마루, 들판 등의 자연 경관을 설명하는 한자어가 붙은 경우, 그리고 글방, 초가집, 역루, 관청 누각, 다리, 섬들 등 인공 경관을 설명하는 경우, 눈, 달, 바람, 안개 등 기상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 추억, 이별, 꿈 등 감정을 설명하는 경우 외에도 꽃이 핀 모습이나 가지의 생김새와 같이 매화 자체의 형태를 설명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기록물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당시 선비들이 누렸던 매화 완상에 대한 보편적 정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 가지 기록물에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매화 가지의 생김새나 꽃의 색깔과 같은 「매화의 형태」, 매화와 어울리는 식물이나 동물을 대표하는 「경물」, 매화가 심겨진 「식재 장소」, 기상 현상이나 기후 요소 그리고 시간과 계절 요소를 대표하는 「경색」, 매화의 이용 방식과 매화 즐기기에 부가했던 요소와 매화를 통해 느꼈던 정서를 포함하는 「행태」로 구분하였다. 즉, 다섯 가지 대항목 테두리 안에 특성이 구분되는 가지·수형, 꽃, 식물, 동물, 물, 지형, 마을, 공공 공간, 주택, 구조물, 기상·기후, 시간·계절, 이용 방식, 부가 요소, 정서라는 15가지 소항목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각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표 2에 분석 정리하였다. 이때, 시간과 기상요소를 함께 표현한 「효일」, 「석양」과 행태와 식재 장소로 중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금옥매」는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서 매화 완상의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화의 형태에는 고생매(孤生梅), 첨지매(疊枝梅), 도지매(倒地梅)로 설명할 수 있는 가지와 수형의 특성과 미개매(未開梅), 반개매(半開梅), 반탄매(半綻梅), 녹악매(綠萼梅), 연지매(臘脂梅), 홍매(紅梅)라는 꽃과 관련된 특성이 해당된다. 매화와 어울리는 경물은 식물에서 죽변(竹邊), 죽매(竹梅), 죽간매(竹間梅), 송하(松下), 송하매(松下梅), 산다매(山茶梅), 녹태(綠苔), 태매(苔梅)와 진금(珍禽), 그리고 고학(孤鶴)으로 설명되는 동물 요소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매화가 식재된 장소는 물과 관련된 청계(淸溪), 계매(溪梅), 조수매(照水梅), 강매

(江梅), 강촌매(江村梅)와 지형 요소인 창애(蒼厓), 영매(嶺梅), 야매(野梅), 초경매(樵徑梅)의 자연 경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공 공간에서 마을과 관련되는 전촌매(前村梅), 강촌매(江村梅), 공공 공간 유형에 해당되는 관매(官梅), 관각매(官閣梅), 역점매(驛店梅), 역루매(驛樓梅), 승사매(僧舍梅), 도원매(道院梅)가 있으며, 주택을 나타내는 금옥매(琴屋梅), 모옥매(茅屋梅), 기가매(妓家梅), 주문매(朱門梅), 기타 구조물에 해당되는 소교(小橋), 소교매(小橋梅), 야교매(野橋梅), 명창(明窓), 서창매(書窓梅), 소리(踴籬), 방계매(傍階梅)가 있다. 또한 매화와 어우러진 분위기를 설명하는 경색 요소의 첫 번째 기상·기후는 가월(佳月), 월매(月梅), 미설(微雪), 설매(雪梅), 효일(曉日), 석양(夕陽), 경연(輕烟), 연매(烟梅), 세우(細雨), 우매(雨梅), 담음(澹陰), 만하(晚霞), 풍매(風梅)로 다양하다. 두 번째 시간·계절 요소는 효일(曉日), 효매(曉梅), 석양(夕陽), 만하(晚霞), 박한(薄寒)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행태 항목에서 매화의 이용 방식은 동병(銅瓶), 병매(瓶梅), 분경매(盆景梅), 감매(龕梅), 묵매(墨梅), 화매(畫梅), 심매(尋梅)로 구분되고, 지장(紙帳), 지장매(紙帳梅), 격렴매(隔簾梅), 등전매(燈前梅), 경중매(鏡中梅)에서 매화 완상에 부가된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임간취적(林間吹笛), 옥적매(玉笛梅), 슬상횡금(膝上橫琴), 금옥매(琴屋梅), 석평하기(石枰下棋), 소설전차(掃雪煎茶), 미인담장잠대(美人簾莊簪戴), 잠매(簪梅)와 같은 인간 행태가 완상과 함께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억매(憶梅), 석매(惜梅), 몽매(夢梅), 별매(別梅)는 매화 완상과 관련된 정서를 표현한다.

3. 매화 완상의 경관 특성

1) 애호되었던 매화의 형태

표 2에 정리된 결과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고생매(孤生梅)」를 애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정원의 중요한 위치에 수형과 상징성이 뛰어난 수목을 독립수로 식재하는 것으로 볼 때 매화가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산청삼매(山清三梅)」나 「호남오매(湖南五梅)」라고 구분하여 고매(古梅)로 손꼽히는 것, 고사나 일화에 얹힌 「정당매」·「도산매」·「남명매」 등 특별한 이름을 가진 매화 중에는 독립수로 식재된 것이 대부분이다(임의제와 소현수, 2012: 75). 이것은 「첨지매(疊枝梅)」, 「도지매(倒地梅)」로 표현된 매화 특유의 수형과 등결, 줄기의 관상 가치와 관련된다. 중국 남송시대 4대 시인으로 알려진 범석호(范石湖, 1126~1193)는 『범촌매보(范村梅譜)』에서 「매화는 운(韻)이 승(勝)하고, 격(格)이 높기 때문에 비낀 가지가 성글고 수척하고, 늙은 가지가 괴기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평하였다(이황 저, 기태완 역, 2011: 203).

「미개매(未開梅)」와 「반개매(半開梅)」·「반탄매(半綻梅)」와 같

이 꽃이 피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은 매화에 대한 애정과 꽃에 대한 반가움에서 기인한다. 선비들은 활짝 피어난 꽃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막 피어나는 매화꽃의 청정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높이 삼던 것이다. 퇴계는 단양군수 시절에 관기(官妓) 두향(杜香)으로부터 녹악(綠萼) 백매(白梅) 한 그루를 선물 받아 동현 뜰 앞에 심고 즐겼다. 선비가 단엽(單葉) '녹악매(綠萼梅)'를 가장 선호한 것과 관련하여 범석호는 '대개 매화는 꽃받침이 모두 강자색(絳紫色)인데. 오직 이것만이 순록(純綠)이다. 가지는 단단하고 역시 푸르러서 특히 청고(淸高)한데, 인간 세상에서 또한 많이 있지 않은 것이어서 당시에 귀중하게 여겨졌다(이황 저, 기태완 역, 2011: 195)'고 기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산 정약용은 홍매보다는 백매가 좋고, 겹꽃보다 홀꽃이 더 고상한 것이라고 하였다. 선비들은 백매 중에서도 꽃받침이 녹색인 녹매를 가장 좋아했다. 녹매는 정숙, 순결, 청고, 단아, 고고한 정절의 기품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안완식, 2011: 15). 반면에 붉은 색의 '연지매(蠟脂梅)'와 '홍매(紅梅)'는 불로 장생의 신선이 되는 단약을 상징하는 도교적 이미지를 가진다.

2) 매화와 함께 즐긴 경물

'죽변(竹邊)' · '죽매(竹梅)' · '죽간매(竹間梅)'의 대나무와 '송하(松下)' · '송하매(松下梅)'의 소나무, 그리고 '산다매(山茶梅)'의 동백나무가 매화와 어울려 즐겼던 수목이었는데, 세한삼우(歲寒三友)에 속하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는 충절을 상징한다. 겨울에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도 같은 맥락에서 포함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화도로 유명한 추담(秋潭) 오달재(吳達濟, 1609~1637)가 그린 「설매(雪梅)」는 매화에 바위와 대나무까지 곁들여 강인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이(二雅)'라고 불리며 부부를 표현할 때 매화는 아내, 대나무는 남편을 상징하였다(이선옥, 2010). 매화는 어린 가지보다 늙은 가지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녹태(綠苔)' · '태매(苔梅)'를 통해서 나무 등걸에 이끼가 붙은 고매의 예스러운 자태를 묘사한 것이다. 다수의 매화도에서 매화의 줄기 · 가지 · 뿌리 · 마디 · 가시와 함께 이끼가 치밀하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매화와 함께 '진금(珍禽)', '고학(孤鶴)'이라는 동물 요소가 완상되었는데, 매화와 학의 관련성은 매화를 아내로 삼고[梅妻], 학을 아들로[鶴子] 삼았다고 하여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불렸던 임포(林逋, 967~1024)의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선비와 학을 연관시켜 고독한 지식인의 외로움을 상징하는 '학고(鶴孤)'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학과 매화를 함께 완상한 것은 한국인의 심상과 감정에 융합하여 특별히 사랑해온 새와 꽃을 결합시켜 짹을 맞춘 결과이다(이상희, 2004: 487).

3) 매화가 식재된 장소

'창애(蒼厓)' · '영매(嶺梅)' · '야매(野梅)' · '초경매(樵徑梅)'와 같은 다양한 자연 경관에서 발견되는 매화가 선비들의 완상 대상이 되었다. 그밖에도 선비들은 일상적 생활공간인 '전촌매(前村梅)' · '강촌매(江村梅)'와 같은 마을 주변이나 공공 공간인 '관매(官梅)' · '관각매(官閣梅)'나 '역점매(驛店梅)' · '역루매(驛樓梅)', '승사매(僧舍梅)', '도원매(道院梅)' 등 특정한 장소에 식재된 매화를 완상하였다. '금옥매(琴屋梅)', '모옥매(茅屋梅)', '주문매(朱門梅)', '기가매(妓家梅)'는 주택과 관련하여 식재된 매화를 묘사하는데, 선비의 처소 가까운 곳에 매화를 심고, 애호하였던 취미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제와 소현수(2012)는 정매(庭梅)의 식재 위치를 '건물 남쪽', '사랑마당', '창문 앞', '담장 가', '물가'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서 물가에 심은 매화는 '조수매(照水梅)'가 설명하듯이 매화 그림자와 달이 물에 반영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서 '水中花 水中月'이라는 시제와 연관된다(임의제와 소현수, 2012: 75). 본 연구에서 추출된 '청계(淸溪)' · '계매(溪梅)' · '강매(江梅)' · '강촌매(江村梅)'는 매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수(水) 경관을 설명한다. '소교(小橋)' · '소교매(小橋梅)' · '야교매(野橋梅)'에서 완상 대상이 된 다리와 울타리를 지칭하는 '소리(疎籬)', 섬들 옆에 식재된 '방계매(傍階梅)'는 매화의 식재 위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명창(明窓)' · '서창매(書窓梅)'처럼 창문 앞은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매화의 중요한 식재지이며, 매향(梅香)이 방안으로 스며들기에 좋은 위치라는 특성을 가진다(임의제와 소현수, 2012: 75).

4) 매화 완상에 어울리는 경색

'가월(佳月)' · '월매(月梅)'의 달, '미설(微雪)' · '설매(雪梅)'의 눈, '효일(曉日)' · '석양(夕陽)'의 해, '경연(輕烟)' · '연매(烟梅)'의 안개, '세우(細雨)' · '우매(雨梅)'의 비, '담음(澹陰)'의 그늘, '만하(晚霞)'의 노을, '풍매(風梅)'의 바람 등 다양한 기상 · 기후가 매화와 함께 완상되었다. 특히 많은 선비들이 「매월(梅月)」, 「매창소월(梅窓素月)」, 「매초월(梅梢月)」, 「월매(月梅)」, 「월야상매(月夜常梅)」, 「월하간매(月下看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매화와 달을 소재로 한 시제를 즐겨 사용하였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매화의 운치는 어떤 꽃보다도 서정적 애상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매화 완상에 있어서 비중 있는 기상 현상은 눈인데, 「설매(雪梅)」, 「설중매(雪中梅)」, 「설이관매(雪裏觀梅)」와 같이 눈 속의 매화를 읊은 시제가 많다.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매천부(梅川賦)」에서 매화와 어울린 달과 눈을 읊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선비들이 눈이 쌓인 차가운 달밤과 어울리는 매화를 즐겼다. 그것은 눈보라를 이기고 피어난 매화의 지조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매화 중에서도 백매가 '맑음[淸]의 미학'에 부합되며, 세상이 눈으로 덮인 가운데에 흘로 서 있는 설매나 어두운 밤 흰 달빛 아래의

월매는 담담한 정신의 경지와 조응하면서 '맑디맑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박혜숙, 2000: 428).

'효일(曉日)' · '효매(曉梅)'에서 표현하는 새벽, '석양(夕陽)' · '만하(晚霞)'에서 지정한 저녁때가 주로 매화 완상을 즐기던 시간이었으며, '박한(薄寒)'에서 추운 날씨와 계절이 매화 완상과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들은 새벽과 저녁의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매화에 대한 관조(觀照)를 통해 자연과 동화를 경험한 것이다. 이것은 어스름한 분위기에서 '암향(暗香)'이라고 지칭되는 청아하고 은은한 매화 향을 즐기기에도 유리한 시간이다.

5) 매화 완상에 부가된 인간의 행태

당시 선비들은 정원에 매화를 심는 방식 외에도 매화 가지를 화병에 꽂은 '동병(銅瓶)' · '병매(瓶梅)'나 화분에 심었던 '분경매(盆景梅)', 온실을 만들어 보호했던 '감매(龕梅)'를 즐겼다. 또한 그림을 그려 감상한 '묵매(墨梅)' · '화매(畫梅)'나 이른 봄 매화를 찾아 떠나는 '심매(尋梅)'의 풍습도 매화 완상의 다양한 행태이다¹³⁾. 매화를 애호했던 선비들이 화분에 매화를 심었던 것은 꽃을 일찍 보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다음의 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분에 매화 심어 비바람 보호하니'

(기대승, 「퇴계 선생의 전천동 우재의 봄매를 읊다」, 『매화시첩』)

'화분에서 설달도 아닌데 매화가 피었는데'

(이황, 「음청정~」, 『매화시첩』)

한편, '지장(紙帳)' · '지장매(紙帳梅)'와 '격령매(隔簾梅)'는 종이 휘장이나 주렴으로 찬바람을 막아 매화를 보호하고, '경중매(鏡中梅)'처럼 거울에 비친 매화의 분위기를 감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화꽃이 필 때 이루어진 시회(詩會)에서 술을 즐기는 매화음이 벌어졌는데, 조선 후기 문인화가인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은 수재(修齋) 오찬(吳贊)의 서재에서 여러 동인들과 얼음등이로 빙등(氷燈)을 만들어 그 속에 촛불을 켜놓고 술을 마셨다는 기록¹⁴⁾이 있으며, 그의 대표작 '야매도(夜梅圖)'는 이런 분위기를 표현한 듯하다. 이와 같은 완상 행태는 분매를 얼음등에 비추어 완상하였던 '등전매(燈前梅)'의 흥취와 연관된다.

이렇게 특정한 경물을 부가하는 방법과 함께 매화 완상에 덧붙여진 다양한 행태가 있었다. '임간취적(林間吹笛)' · '옥적매(玉笛梅)'에서 파악되는 피리 소리나, '슬상횡금(膝上橫琴)' · '금옥매(琴屋梅)'에서 알 수 있는 거문고 소리 등 음악이 매화 감상에 운치를 더했다. 신선의 경지를 연상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문고는 풍류 이외에도 문인들의 정신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매사의 동인이었던 추월(秋月) 남옥(南玉, 1722~1770)은 눈이 외로운 매화 꽃송이의 밝음에 빛을 더해 옥창을 환히 밝혀주고, 매화의 청절한 미에 힘을 보태 금서(琴書)를 차갑게 비춘다고 읊었다. 이때 금서는 단순히 거문고와 서책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대부의 청절한 정신 경계를 비유하는 말로 이해된다(신익철, 2002: 44). '석평하기(石枰下棋)'의 바둑을 두거나 '소설전차(掃雪煎茶)'의 차를 끓이는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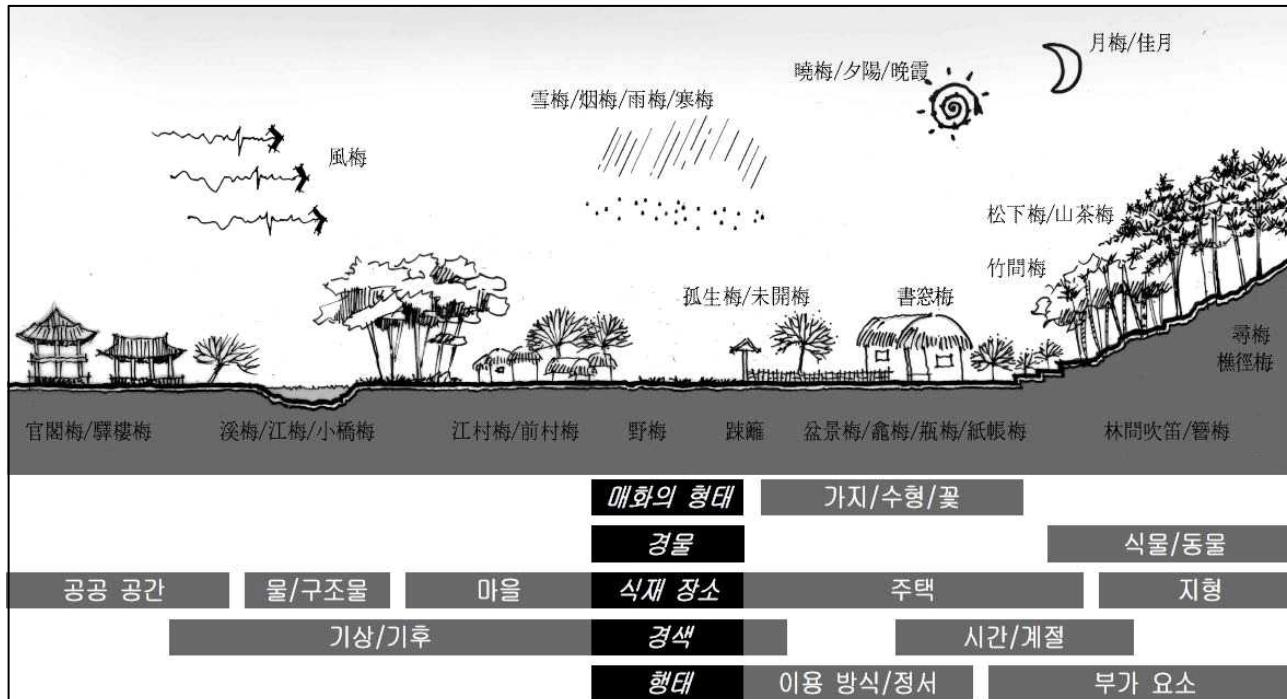


그림 1. 매화 완상의 경관 특성에 대한 개념도

매화 완상과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그곳에는 매화를 함께 즐긴 ‘미인담장잠대(美人澹粧簪戴)’로 묘사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여인들이 일부종사의 미덕을 다짐하며, 절개의 상징인 매화와 땃잎을 비녀에 새긴 매화簪(梅花簪)을 머리에 꽂기도 했는데(김현우, 2010: 24), ‘잠매(簪梅)’는 이처럼 절개를 지키는 우아한 여인을 상징한다.

매화는 선비들이 즐겼던 대표 수목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매화시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매화의 생물학적 특질로부터 기인한 일련의 정서가 공유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매화는 ‘억매(憶梅)’, ‘석매(惜梅)’, ‘몽매(夢梅)’, ‘별매(別梅)’와 같이 추억, 애상, 꿈, 이별 등 인간의 감정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사물을 관조하여 자신의 뜻을 담은 결과인데, 동아시아 사상을 대표하는 특성 중 하나이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유형별 매화 완상의 대상은 당시 선비가 매화를 즐겼던 보편적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선비가 매화와 함께 완상한 대상들이 곧 원림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표 2에서 추출한 매화 완상의 대상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원림 경관을 그림 1에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서 매화와 함께 소나무, 대나무, 학으로 구성되는 상징성이 강한 경물, 달과 눈으로 대표되는 맑은 이미지의 기상·기후와 춥고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는 시간·계절로 구성되는 경색. 그리고 여기에 관조의 정서와 흥취를 돋우는 행태가 어우러진 당시 선비들이 즐긴 복합적 경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높은 품격을 부여하고 애호했던 매화를 완상하며 옮은 연작시인 신위의 「매화삼십육영」과 정학연의 「매화삼십수」의 시제와 함께 매화와 잘 어울리는 대상을 제시한 중국 송대 문인이었던 장자의 「옥조당매품」을 분석하여 매화 완상의 대상을 유형화하고 매화 완상의 경관 특성을 규명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화의 생태적 특질에서 기인한 명료한 계절성·시간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징성과 관련하여 선비들은 다양한 대상과 어우러진 매화를 완상하였다.

2. 매화 완상의 대상을 수형과 꽃으로 특징지어지는 ‘매화의 형태’, 매화와 짹을 이루는 식물과 동물로 구성된 ‘경물’, 물이나 지형과 연관된 자연 경관 속 매화나 마을, 공공 공간, 주택, 구조물로 구분되는 매화의 ‘식재 장소’, 기상·기후와 시간·계절을 나타내는 ‘경색’, 병매·분매·감매·심매·묵매 등 매화의 이용 방식과 흥취를 돋우는 부가 요소 및 매화가 함축하고 있는 정서를 포함하는 ‘행태’로 유형화하였다.

3. 선비들은 매화의 형태에 있어서 가지의 기괴한 형상이 돋보이는 독립수를 즐겼다. 또한 맑은 정서와 기품을 가진 녹색 꽃받침에 백색 홀꽃을 가진 매화를 선호하였으며, 도교적 이미지를 가진 홍매를 즐기기도 하였다.

4. 선비들은 매화와 어울리는 경물로서 겨울을 견디는 절개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소나무·동백나무와 함께 매화를 완상하였고, 밀동에 이끼가 있는 예스러운 자태의 매화를 즐겼다. 또한 외로운 선비를 연상시키는 학을 매화의 짹으로 인식하여 매화와 함께 완상하였다.

5. 식재 장소와 관련하여 선비들은 자연 경관 속 야매 외에도 다리, 울타리, 섬돌 옆과 같은 생활공간에 매화를 심어 애호하였다. 선비들이 특별히 즐겼던 정취는 물가에 반영된 매화의 모습과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창문 앞 매화가 만드는 경관이었다.

6. 백색, 맑음, 담담한 정신의 경지에 조응하는 달과 눈이 매화 완상에서 집중된 기상 현상이었으며, 새벽과 저녁 등 추운 날씨가 매화 완상에 어울리는 경색 조건이었다.

7. 선비들은 꽃을 일찍 보기 위해서 병매, 분매, 감매와 함께 심매, 묵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화를 완상하였다. 또한 선비들은 매화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서 종이 휘장, 주렴, 거울, 얼음 등을 이용하였으며, 피리나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청절한 풍류를 즐기고 바둑을 두고 차를 끓이고 절개 있는 미인과 함께 하는 등 매화 완상에 있어서 다양한 행태가 이루어졌다. 사물을 관조하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선비들은 추억, 애상, 꿈, 이별과 같은 정서를 부여한 매화를 완상하였다.

8. 살펴본 바와 같이 선비들은 매화 자체의 형태미, 매화와 어울리는 식재 장소와 짹을 이루는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경물은 물론이고, 기상·기후, 시간·계절과 같은 경색, 그리고 인간의 행태 등 변화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대상과 어우러진 경관에서 매화를 즐겼다.

매화시제라는 함축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성격상 매화 완상 경관을 임의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매화를 옮은 다수의 시문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완상 대상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림 경관의 입체적 양상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 1) 강희안(姜希顏)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는 중국 남송시대 4대 시인으로 알려진 범석호(范石湖)가 『범촌매보(范村梅譜)』 서문에 ‘매화를 천하에 으뜸가는 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원예를 배우는 선비들은 반드시 먼저 매화를 심는다고 기록하였다(강희안 저, 이병훈 역, 1973: 58).

주 2) 중국 송대 임포(林逋)의 「산원소매(山園小梅)」에 등장하는 시어는 후대에 매화도의 단골 화제(畫題)가 되었다. 이때부터 달과 함께 그린 월매도, 물가에 가지가 거꾸로 자라는 도수매(倒垂梅) 등이 유행했다(강판권, 2010: 240).

주 3) 퇴계가 평생 남긴 매화시는 모두 72제 107수이며, 이 가운데 42세

때부터 70세 때까지의 작품 62제 91수를 퇴계가 선별하여 묶은 것
이『매화시첩』이다.

- 주 4)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평산, 호는 자하(紫霞) · 경수당(警修堂)이다. 19세기 전반에 시 · 서 · 화 삼절로 유명했던 문인이며, 그의 시를 가리켜 김택영(金澤榮)은 시사적(詩史的)인 위치로 볼 때 500년 아래의 대가라고 칭송할 만큼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사람�이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주 5) 조선 후기의 문인. 본관은 나주, 호는 유산(酉山)이다. 다산 정약용의 장남으로 다산의 문예 정신을 이어 받은 다산학단의 중심 인물이다. 최근 19세기 다산학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 작품에 대한 발굴과 정리가 이루어졌다(김지영, 2011: 137).
- 주 6) 자는 공보(功甫), 호는 약재(約齋). 죽석(竹石)과 고목(古木)을 잘 그렸으며, 글씨에도 뛰어났다.
- 주 7) 『퇴계 선생 매화시첩』에 해제되어 수록되었다(이황 저, 기태완 역, 2011: 215~219).
- 주 8) 시제는 시의 내용을 한 단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하여 해당하는 시문(詩文)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 주 9) 「만록(漫錄) 경자(庚子)」, 『삼연집(三淵集)』 권36. '看梅花有許多般。有玩其天機呈露。箇箇太極而樂者。周邵諸賢是也。有取夫孤標冷韻。託爲知己而樂者。林逋輩是也。有賞真色挹清芬。助發詩興而樂者。詞人墨客是也。有親近國艷。不耐風流。褰金帳酌羔酒而樂者。公子王孫是也。有以雪中能春。無葉有花爲可異者。凡夫俗見是也。'
- 주 10) 「매사오영」은 200수 시편에 대해 거의 매수에 붙어있는 평어(評語)들은 서얼 문사와 정화거족의 문학적 성향을 구명하는데 요긴한 자료이며, 18세기 한시 비평의 일단을 생생히 드러내주고 있다. 아울러 여러 편의 발문은 시사의 분위기를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서 이들 간의 문학적 교류를 실증적으로 추적하는데 요긴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신익철, 2002: 46).
- 주 11) 『선음』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1책의 필사본 시선집이다.
- 주 12) 「잡저(雜著) 서중균화(書仲均化)」, 『탁영집(濯纓集)』 권1. '觀其雪禪枝幹。月傳香影。風高葉蕊。煙隱色艷。有寂寥。底。灑落底。爽塏底。疏淡底。一毫造化。'
- 주 13) 임의제와 소현수(2012)는 매화를 묘사한 각종 문헌과 그림 자료를 고찰한 결과, 매화의 전통적 이용 방식을 탐매(探梅) · 정매(庭梅) · 분매(盆梅) · 병매(瓶梅) · 조매(造梅) · 묵매(墨梅)의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 주 14) 『능호집(凌壺集)』 권1. '吳敬父山天齋。觀新鑄銅爵。懸水燈賞梅。取螺甲飲酒。金進士伯愚尙默亦携壺榼而來。'

인용문헌

1. 강관권(2010).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파주: 글항아리.
2. 강희안 저, 이병훈 역(1973). 양화소록. 서울: 을유문화사.
3. 김지영(2011). 정학연의 매화 연작시 「매화삼십수」에 대한 일고. 장서각. 25: 136-162.
4. 김지선(2007). 우봉 조희룡의 매화도. 미술사연구. 21: 107-130.
5. 김현우(2010). 매화나무. 파주: 이담(한국학술정보).
6. 박혜숙(2000). 조선의 매화시. 한국한문학연구. 26: 419-448.
7. 『선음(鮮音)』. 장서각.
8. 소현수(2011). 차경을 통해 본 소쇄원 원림의 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59-69.
9. 신익철(2002). 매사 동인의 매화시 창작과 비평. 한국문학연구. 3: 35-65.
10. 신익철(2004).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학연구. 15: 97-126.
11. 안완식(2011). 우리 매화의 모든 것. 서울: 놀와.
12. 이상희(2004).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서울 : 넥서스BOOKS.
13. 이선옥(2006). 조선 중기 매화도 화풍의 특징과 영향. 미술사학연구. 249: 5-35.
14. 이선옥(2010). 조선시대 매화도에 표현된 미감. 한국민족문화. 37: 255-286.
15. 이유직, 조정송(1996). 중국정원의 미학. 한국조경학회지. 24(3): 79-95.
16. 이정은(1996). 한국 매화시의 전통과 계승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택동(2004). 18세기 매화시 연구. 성심어문논집. 26: 197-223.
18. 이황 저, 기태완 역(2011). 퇴계 선생 매화시첩. 서울: 보고사.
19. 임의제, 소현수(2012). 전통원림에 도입된 매화의 이용과 배식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3): 68-79.
20. 장남원(2007). 한국 미술 속의 매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1. 조희룡 저, 한영규 역(2003). 매화삼매경-조희룡 산문선. 서울: 태학사.
22. 최강현(1975). 사군자의 문학적 고찰(I): 주로 매화를 중심하여. 홍대논총. 7: 21-40.
23. 최종현(2000). 안축의 승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8(2): 49-62.
24. 홍현미(2009). 조선말기의 매화도 연구-여향화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http://db.ithkc.or.kr>(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6. <http://encykorea.aks.ac.kr>(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7. <http://kjg.snu.ac.kr>(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고 접수 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일: 2013년 12월 10일 (1차)
2013년 12월 17일 (2차)

게재 확정 일: 2013년 12월 18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